

## 18. 동산을 잃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자면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내 근원을 말한 것이다.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가, 누가 사람을 지었나? 이것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었는가? 이것이 창세기 1장 26-27절에 있는 말씀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는데 ‘동산’은 과수원이라는 뜻이다. 노는 곳, 사는 곳이 동산이다.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마치 성막을 만들 듯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안개만 자욱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흠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산 혼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흠에 생기가 들어와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흠에 씨를 넣으면 발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형상’이라는 말은 알아듣기가 모호하다. 흠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정확하다. 우리 몸은 흠과 같은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소위 ‘사람’이라는 것이 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은 외부로부터 생명이 들어가야 무엇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날 때는 다 같은데 크면서 달라지는 것이다. 밖에서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 자기가 스스로 한 줄 알지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밖에서 무엇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디서 그 말을 배웠느냐고 물으면 자기가 알았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늘 듣다 보니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모든 이치가 그러하다.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것이 그것이다. 같은 아기라도 어디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환경도 일종의 말이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바깥에서 무엇을 받아들인다. 맨땅에 잡초가 나지만 그것도 저절로 난 것이 아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왜 잡초가 났을까? 씨가 날아왔거나 새들이 먹고 버렸기 때문이다. 흙 자체에는 없는 것인데 밖에서 무엇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흙은 농부를 만나서 곡식이 심겨지면 밭이 되지만 농부를 만나지 못하면 잡초밭이 되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황무지가 된다.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씨가 떨어져도 수분이 없기 때문에 발아를 못한다. 그런데 비만 오면 사막도 금방 초원이 된다고 한다. 지금 사막인 지역이 옛날에는 초원이었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초원지역이 사막화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흙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외부로부터 무엇이 들어가야 포도밭이 될 수도 있고 옥수수밭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알지만 스스로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다 한국말을 잘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한다. 우리는 어려서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 영어를 하려면 어렵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는 미국 개나 한국 개나 똑같다. 소도 마찬가지다. 하등동물로 내려갈수록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등동물로 올라갈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개도 묶어 놓고 키운 개와 풀어 놓고 키운 개가 성질이 다르다. 묶어 놓고 키운 개는 사나운데 풀어 놓고 키운 개는 사납지 않다. 묶이는 영향 때문이다.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다. 불가에서는 외부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애를 쓴다. 그것 때문에 업보가 생기고 세상의 고통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 그 어려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업보를 벗어나 자아가 뚜렷하게 드러나서 아주 청정한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자기를 찾으려는 것이다.

흙으로 생각하면 쉽다. 씨가 없으면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지만 씨가 있으면 밭이 된다. 여자 팔자는 뒤옹박 팔자라고 하는데 흙처럼 팔자가 잘 바뀌지는 것도 없다.

제주는 땅이 좋지 않다.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이다. 그런 돌짜밭은 값이 없다. 옛날에는 돈 몇푼 주면 살 수 있는 값싼 땅이었다. 그런데 그런 땅은 곡식은 자라기 어려운

데 나무는 잘 된다고 한다. 돌이 있는 곳에는 수분이 있어서 나무가 잘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굴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땅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나라 GNP가 100불에서 1000불로 올라갈 때 경축식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1000불로 올라간 데가 제주다.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농민이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고 그것밖에 수익이 없었다. 지하자원이 많은 북한보다 GNP가 낮았다. 그러다 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급격히 변화했는데 GNP 1000불을 달성했다고 금자탑을 세우기도 했다. 육지에서는 돈 주고 사지도 않을 제주의 그 척박한 땅이 굴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게 되었다.

사람도 똑같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으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받은 영향력이 가장 오래 간다.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어린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때 받은 영향이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의 영향력이 크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사람이다. 영향을 전혀 안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아도 전혀 모른다면 바보다. 머리가 좋은 아이일수록 민감하다. 받아들이는 것이 민감하고 기억하는 것이 민감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셨다. 동산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한 문제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창조된 그대로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거의 100%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사람이 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으로 존경받고 높임이 되고 귀중히 여겨지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받을 가는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농부가 게으르거나 잘못 경작하면 수확이 나지 않는다. 같은 땅에서도 농부가 부지런하고 성질하면 수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해서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평판이 날 수도 있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평판이 날 수도 있고 고약한 하나님이라는 평판이 날 수도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명백하게 해 놓은 말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1:17).” 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율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예수는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실재를 내놓았다. 사람에게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 되기도 하고 은혜와 실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모세 시대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법적인 관계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혜와 실재가 있는 관계가 되었다. 법적인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바뀐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거기 매여서 다른 것은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네가 모세만 하나? 모세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며 모세와 비교했다. 역사로 본다면 모세가 훨씬 큰 일을 많이 했다.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나 광야에서 사십 년을 인도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다. 그에 비해 예수는 불과 삼년반 정도에 불과하고 한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 시시한 일이었다.

세레 요한은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에게 물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다. 옥에 갇혀서 죽을 판이었던 세레 요한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다 해서 독립이 되겠는가. 세레 요한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말인 것이다. 그래 놓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의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다.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세계, 소경이 눈을 뜨는 세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세계,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앓은뱅이에게는 나라가 독립하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소경에게는 나라가 있으나 없으나 소경이니까 그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 개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죽으면 나라가 있겠는가. 개인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 국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회를 만든 것도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인간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신다.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이런 나라가 되고 사람이 저런 사람이면 저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도 공산주의 사회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공산주의도 되고 자본주의도 된다. 우리 생각에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먼저 있고 사람

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있어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제비가 있으면 제비집이 만들어지고 까치가 있으면 까치집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저런 인간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다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고 계신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람을 다 미국에 옮겨놓으면 한국이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을 다 한국에 옮겨놓으면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환경은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대로 금방 만들어낸다.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유럽처럼 만들어 놓았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다. 그 사람이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이 달라졌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이 파괴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어디서든지 그러하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위치가 먼저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이 간첩이라면 더 무섭다.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간첩으로 들어왔다 해도 별 문제 안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간첩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자. 그 회사는 망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교회가 있어서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 이상의 교회는 될 수 없다. 교회라는 것을 물건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해서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시끄럽고 분열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문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은 사람이 경작하지만 그것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에덴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마찬가지다. 연합이 있어서 생명이 번식하고 연합이 있어서 무엇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하나가 굴러가려면 삼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삼만 개의 부품이 전부 연합을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지 혼자 갈 수 없다. 모든 것이 그렇다. 흠

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홀로 서려고 하고 혼자 독립해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은 천리를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동산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동산을 회복하려면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간단하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고 가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

천로역정이라는 중세의 소설은 유명한 소설이다.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소설이다. 천성에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골골이 시험을 거쳐서 천성문에 이른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오면서도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을 다 채우기가 어렵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기 어렵다고 했던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당에 가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다. 맨날 설교를 들어도 안된다. 설교가 모두 천당에 가자는 것인데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다. 동산에서는 매일 보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매일 아버지를 보았을 것 아닌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 아버지 것이니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홀로 살아 보겠다고 재산을 갈라서 나갔고 허랑방탕하다가 남의 집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았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니 너무 어려웠고 체면이 서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아버지가 받아주시겠는가? 굶주리고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갈 수 없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고생을 하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러다 죽는 것보다 매를 맞고 쫓겨나더라도 차라리 아버지께 가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돌아오게 되었다. 와 보니 아버지는 매일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너무 쉬운 길인데 못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도 못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놓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죽으면 죽었지 못가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굶어 죽자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자고 한 것이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에 와 보니 탄판이다. 그러니 얼마나 견해의 차이가 있는가. 그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쉽다고 하셨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어찌

그리 어려운지!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예수님은 그리하셨다. 니고데모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것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를 의논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냥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의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다.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너무 쉬워서 그 말을 못알아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온다는 말입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천주교로 말하면 추기경 급에 해당되는 높은 관원이다. 칠십인 공회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리저리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기가 막히는 말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것도 모르느냐?”고 하신 것이다. 선문답도 아니고 도대체 이 대화가 무슨 대화인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헛갈리고 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니고데모도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을 해도 안들을 것이고, 못들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무 쉬우니까, 니고데모에게는 문제가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초등학생 문제를 내놓고 박사시험을 보라고 하면 시험을 보려고 하겠는가? 너무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쉬운 자리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니고데모는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가 가고난 후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니라.”라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고 “쳐다 보라. 그러면 산다.”고 했다고 하신 것이다. 이것도 막막한 말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도 아니고 흥부 박타는 이야기도 아니라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이 한 말이다. 무엇이 있었으니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랐다. 왜 뱀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는지, 왜 뱀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는지 몰랐다.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다고 거듭나는가?

나는 이것이 안돼서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되지 않았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감동이 안되었다. 나에게서는 예수를 잡아 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였다.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항상 짹짹했다. 그렇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다.

이제 보니 장대에 늦밤을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라. 쳐다보고, 자세히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보기만 하면 되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보입니다.”라고 말한다. 답답하다. 나도 수십년 간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쳐다볼 줄 몰랐다. 근사한 길로 왔지만 이것을 쳐다볼 줄 몰랐다. 아주 간단하다.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은 한 가지뿐이다.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것뿐이다. 너는 사람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당신 지금 어디에 있소?”라고 묻는 말은 광주에 있는지 목포에 있는지를 묻는 말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질문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지금 총리실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이 대답을 할 수 없으면 곤란하다. 딴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왜 그런 대답이 나왔겠는가?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농부의 위치를 이탈한 것이다. 아담은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 흠처럼 씨를 받아야 키워내야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담은 그 위치를 벗어났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홀로 무엇이 되려고 하다가 위치를 벗어난 것이다.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자기를 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무지해서 몰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지식과 관계없다. 사람의 위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원시인이 낫지 인간 문화가 발전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 모르지만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 보고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나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는가, “오병이어서 오천 명을 먹이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분의 마지막 말이 중요한 말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다 이루었다(All finished).’라는 말은 끝났다는 뜻이다.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이다. 다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인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치와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예, 지금 나는 십자가에 못박혀 있습니다. 내려가지 못하고 이려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정직한 대답이고 가장 합당한 대답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쉽다.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가 된 체 하면 안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무엇을 시킬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무엇을 하라고 시킬 수 있지 “나는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일을 시키겠는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사명을 줄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일하느라고 바쁩니다.”라고 하면 “그래. 너는 일이 바쁘구나. 잘해 봐라.” 하시지 않겠는가. 사람이 바쁘다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는가.

그런데 “나를 품꾼으로 써 주는 분이 없습니다. 오후 세시까지 기다렸는데 나를 품꾼으로 데려가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라.” 하신다. 네 일이 없으면 와서 내 일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 일이 바쁘다고 하면 “네 일이 바쁘면 네 일을 해라. 내가 억지로 너를 끌어다 시키겠느냐.”고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고 내 경험이기도 하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유여하를 따지지 않고 따라나왔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겠는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다. 자기 갈 곳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 수 없다.

사람과 하나님은 이상한 관계다. 가까우려면 무진장 가까운 관계고 멀려면 한없이 먼 관계다. 하나님과 개의 관계는 항상 일정한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늘과 땅처럼 멀 수도 있고 자기 품 안처럼 가까울 수도 있다. 이 기본적인 관계에서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다.

창세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다. 창세기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져서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 창세기라는 것을 쓰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창세기를 다시 쓰면 되니까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창세기를 써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다. 물을 보고 물이라고 한 것이고 산을 보고 산이라고 한 것이니까 바꿀 수 없다. 어느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었는데 산은 산이라 해서 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있는 산을 보고 한 말이다. 어떤 방법으로 말하느냐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이미 산은 있었고 이미 물이 있었다. 이미 하나님이 있고 이미 사람이 있었다. 이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있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다른 책은 보는 사람마다 자기대로 가져갈 수 있다. 성경은 그 사람에게 한 말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잘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들린다.

연애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애인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애인이 읽으면 꿀송이보다 단 것인데 남이 읽으면 웃음거리밖에 안된다. 밤잠을 못자고 심각하게 써 놓았는데 남이 읽으면 우스워 죽는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쓴 것이다. 어떤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어떤 사람에게 말해 준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따로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 준 말이다. 어떤 연유로 못듣고 있을뿐이지 누구만 선택해서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들을 때 보면 꼭 선택해서 들려주는 것 같다. 그 말을 알아듣게 되면 자기에게만 들려주는 말 같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듣기에 그 말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말을 들었지만 자기에게 한 말로 들리지 않았다. 다른 책은 누가 보아도 같은데 성경은 말씀한 것을 들으면 ‘아이고, 나 보고 한 말이구나.’라고 들을 수도 있고 타산지석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담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같은 대답을 하기 싫어서였다.

예수님은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박아 놓으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네요. 어느 날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도 해 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게도 해 주고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해 주시더니 십자가에 못박아 놓으니 꼼짝도 못하겠네요.”라고 하신 것이다. 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엿그제까지만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보고 남은 구원하고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어이없는 말인 것 같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못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받은 하나인데 씨가 다르고 농부가 다르다는 차이밖에 없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이 사람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누구든지 다 살리면 안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다니면서 앞 못보고 답답한 사람들을 다 눈뜨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안된다. 방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도 다시 해 보면 못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는 기도를 하면 펄펄 끓는 때가 있었다고 한다. 앓은뱅이도 일어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앓은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잡아 당겼다고 한다. 그러나 오그라든 사람을 잡아 당기니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셨다. 사실은 이 말도 할 수 없게 되셨다. 그런데 그분이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나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아담은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다. 언제든지 죽은 시체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존재다.

그러나 사람은 이 위치를 떠났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무서운 저주가 내리게 된 것이다. 길이 없고 가시밭만 있어서 인생이 평생 살아도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었다. 길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 잘 벌고 국회의원에라도 당선되고 하면 잘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이 꼭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언젠가는 허망해진다. 가시밭밖에 길이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 보면 허망하다. 성공했다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위치가 어딥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소. 이런 것을 한 사람이요.”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노인정에 노인들이 모이면 맨날 그 소리뿐이다. 남의 말은 안듣고 자기말만 한다.

길은 가시밭 길이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노동을 말한 것이 아니다. 살려면 고통스럽다는 말이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을 벽돌을 굽느라고 애만 쓰는 것이다. 단단히 구워지면 깨지지기가 더 어렵다. 잘 굽는다고 고온에서 오래 구울수록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렵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나는 어차피 땅을 갈아야 살 사람이다.’라고 알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이다.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갈아야 할 곳으로 간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길이 있을 때 빨리 잡아야 한다.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다. 길 되신 그분이 나의 노력보다, 나의 잘난 것보다 중요한 분이다. 나의 길이 되시니까 어찌하면 내 생명보다 중요한 분이다. 나의 길이 되신 분이니까 내가 바쁜 것보다,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한 분이다. 내 길이 되시니까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분이다.

길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헛일이다. 길이 없는데 어디를 가겠는가?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졌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했던 아내와도 떨어지게 되었

다. 다 떨어지고 말았다. 분열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다. 사람은 만나면 갈라진다. 쪼개진다. 하나가 안된다.

하나가 안되면 멸망이다. 하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다. 남자가 여자를 못만나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똑똑하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나 홀로’,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나 홀로’는 멸망의 길이다. ‘연합의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써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보이는 것이다. 인간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내 자신이 보이고 다 보인다. 나를 써 놓았으니까, 나를 보고 써 놓은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다. 사진을 찍어놓듯이 나를 보고 나는 아는 분이 써 놓은 것이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복음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인생에 주어진 축복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지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되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이것이 앞서야 한다. 나를 아시는 이가 나를 보고 써 놓았으니까 이것은 틀림없다. 틀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러달라고 하면 되지만 내가 살아 보니 틀림없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살아 보니 내 말이고 나를 보고 한 말이다. 나를 보고 한 말이니까 틀림없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고 “너는 이렇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한다.